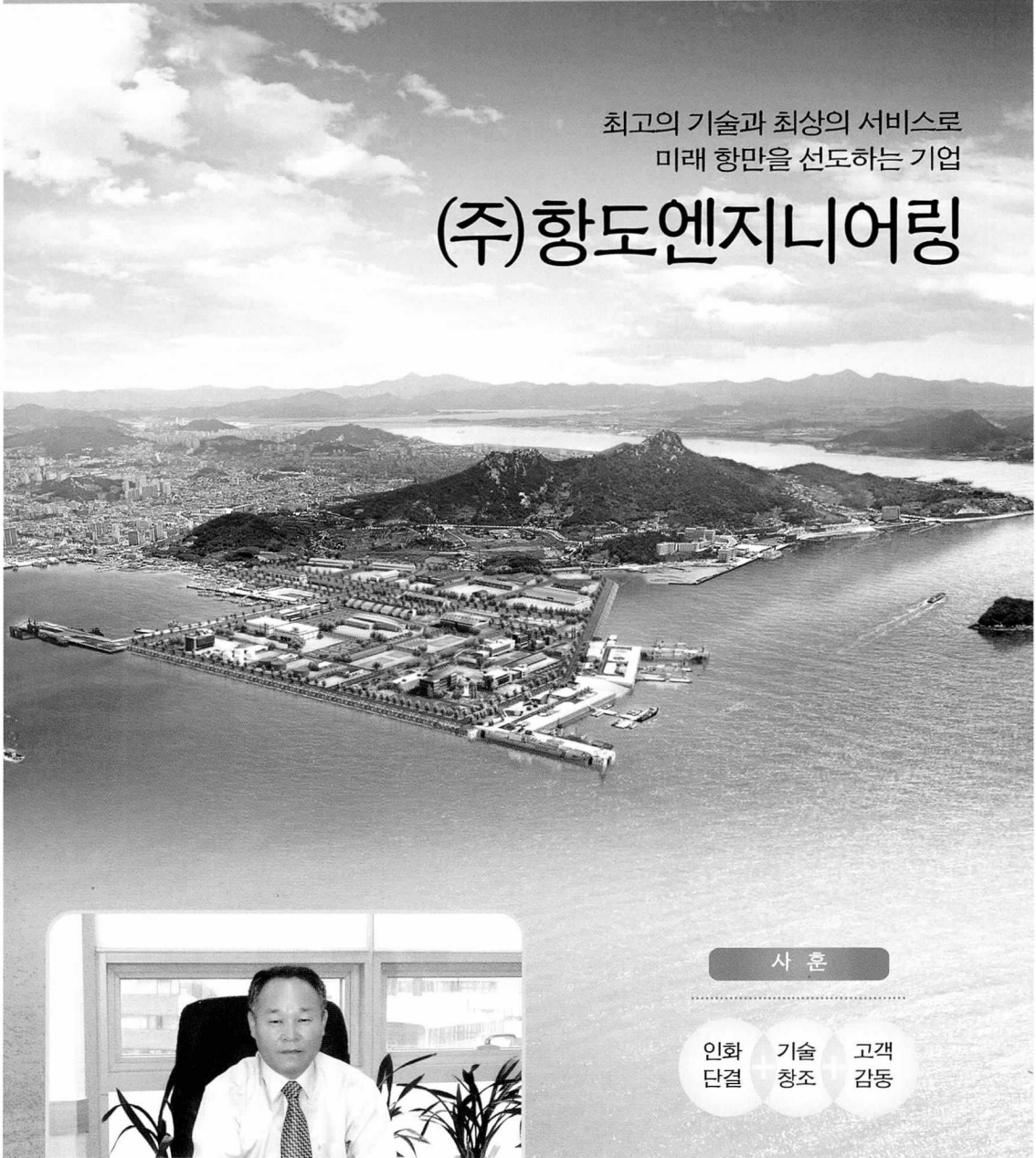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 향만을 선도하는 기업

(주)항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진식

사훈

인화
단결

기술
창조

고객
감동

최고의 기술력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 항만을 선도하는 기업



www.hangdoeng.co.kr



광양항 3-3차

(주)항도엔지니어링은 항만, 어항 및 해안분야의 사업에서 최상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2월에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전문기술인들이 설립한 젊은 조직으로서, 최상의 품질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과 감동을 제공하는 것을 회사의 일차적인 가치로 설정하여 출범한 회사이다.

(주)항도엔지니어링은 창립 후 국내외 유수의 항만 및 어항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책임감리 등을 수행해왔으며,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특히 터키 및 대안설계 등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정부발주 용역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동종업계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주)항도엔지니어링을 이끌고 있는 최진식 사장은 창립 이래 참신하고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양성하고 정부 및 민간 사업 그리고 해외사업의 각종설계에 참여하기 위해 매진하

고 있다. 최진식 사장은 1976년부터 2001년까지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의 항만 및 어항개발과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 교통부장관 표창, 1995년에는 모범공무원 표창, 1997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모습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항만업계에서 존경받는 선배로서 업계의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회사를 선도적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익성 위주의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더욱 가치 있고 금지를 가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력관리 제도와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의 발굴·육성에도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2004년 임직원 일동 중국 연수



2005년 임직원 일동 필리핀 연수

또한, 회사내 전문기술자를 대표하는 안익성 전무이사는 1985년에 한국종합기술에 입사 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기반을 토대로, 회사 창립과 동시에 전무로 취임하여 회사운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적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항만협회 등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직을 맡아 어촌어항의 바람직한 개발 분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항도엔지니어링은 대안/터키시장을 비롯해서 민간사업과 정부 및 지자체 발주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빠르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3년 3월 광양항 3단계 3차 컨테이너부두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03-00부두 태풍피해복구 시설공사 TK입찰 항만 설계용역,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제1공구) 축조공사 대안설계용역,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대안설계 등의 터키/대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는 평택 대한시멘트 전용부두, 울산신항 3, 6, 9번 선석과 세진물류 전용부두, 울산염포부두, 당진현대제철 10만, 20만톤급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전국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수립용역, 항만 Waterfront 개발시행방안 연구 및 마스터플랜용역, 항만 Waterfront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우리나라 미래항만의 기틀을 마련하는 굵직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항도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외적성장과 병행하여 내적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녀교육비 지원을 비롯하여, 회사내 테니스회, 산악회, 마라톤회 등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립 이래 현재까지 매년 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어, 2003년에는 홍콩, 싱가포르 지역의 주요항만, 2004년에는 중국의 상해, 청도, 연태, 위해 등 주요항만을 방문·시찰하여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2005년에는 필리핀에서 임직원 연수를 시행하였다.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터미널



목포항 해경 어업지도선 부두



산사랑 등산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또한, 회사내 젊은 기술진들의 육성을 위해 감리현장과 연계한 직원들의 현장견학과 연수회를 통해 현장경험을 습득하게 하고 있고, 신입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월회 이상 자체 기술진뿐만 아니라 외부 우수강사의 초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요소 기술 등에 대한 발표회 과정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가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또한 (주)향도엔지니어링은 21세기의 초일류 엔지니어링으로 도약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전문적인 인재들의 발굴과 양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업계 최초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인적자원개발)우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현재 진행중이다.

HRD 사업은 조직에서 필요한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조직원의 자기개발을 고취하고, 특히 관리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도적인 엔지니어링사로 우뚝 서기 위해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으며, 창의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현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21세기 초일류 엔지니어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주)향도엔지니어링은 2006년 신홍 벤처단지인 구로디지털 지역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



마라톤동호회

▶ 회사연혁

- 2003. 02. 12 주식회사 향도엔지니어링 창립
- 2003. 03. 19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 2003. 05. 29 감리전문회사 등록
- 2004. 05. 2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4. 06. 16 기업부설기술연구소 인증
- 2006. 01. 15 구로디지털단지 본사 이전
- 2006. 05. 0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추가(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분야) 신고